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35>



나는 얼마나 천한 사람인가

네पाल 여행하던 중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침 한 가게 앞에 개 한 마리가 죽어 있더군요. 친구는 가게주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긴 할 뿐 치울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나절이 지나도록 죽은 개는 여전히 가게 앞에 놓여 있었고 사람들은 가게에 들어와 물건을 사려고 하지 않았습니...

부처님은 진정 우리를 천하게 만드는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화를 내고 원한을 품으며 악독하고 시기심이 많고 소견이 그릇되어 남 속이길 잘 하는 사람.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살아 있는 생명을 해치고 생명에 자비심이 없는 사람, 마 음은 물론이요, 도시들을 파괴하거나 약탈 하여 독재자로 널리 알려진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을 천한 사람으로 아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남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하고, 주지 않는 것을 빼앗는 사람, 빛을 저 놓 고도 돌려달라고 독촉 받으면 '내가 값을 빛 은 없다' 라고 발뻠하는 사람, 얼마 안 되는 물건을 탐내어 길가는 사람을 살해하고 물 건을 약탈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 을 천한 사람으로 아십시오. 증인으로 불러 나왔을 때, 자신이나 남 때 문에 또는 재물 때문에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 때로는 폭력을 써서 또는 서로 사랑에 빠져 친지나 친구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사람, 자기는 재물이 풍족하면서도 나 이 들어 늙고 쇠약한 부모를 섬기지 않는 사 람이 있다면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십시오.

천한 인간의 조건 짚어가다보니 부끄럽네요 당신은 이 조건 가운데 몇가지나 걸리십니까

던 게총이있기에 그 자부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탁 발하러 거리로 들어서자 한 바라문이 부처 님을 이렇게 놀려댔습니다. "아이, 거기 까까중! 잠시 서보게. 천한 녀 석아, 거기 서라니까!" 부처님의 승단에는 천민들도 출가하여 몸 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급차 별의식에 찼던 이들의 눈으로 볼 때 부처 님조차도 천민들과 어울렸으므로 부정을 탄 더러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가급적 세상과 다루지 않겠다는 것이 부 처님의 신조입니다만 부처님은 뭔가 중요한 것 하나를 그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모양 입니다. 발걸음을 돌려서 그 바라문에게 다 가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당신은 대체 어떤 사람을 천한 사람이라 부르는지 알고나 있소? 무엇이 사람을 천하 게 만드는지 알고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오?" 부처님의 차분한 힐난조에 바라문은 자신 은 상대하지도 말라고 하였고 어떻게 대답하 고 그렇게 말했을 뿐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제 부모나 형제 자매, 혹은 배우자의 어머 니를 때리거나 욕하는 사람, 유익한 충고를 구할 때 불리하게 가르쳐주거나, 불분명하 게 알려주는 사람, 나쁜 일을 하고서도 자기 가 한 일을 모르기를 바라며, 그 일을 숨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천한 사람으로 아 십시오. 남의 집에 가서는 웅성한 환대를 받 으면서 손님에게는 대접하지 않는 사람, 자 기를 칭찬하고 타인을 경멸하며 스스로의 교만에 빠진 사람, 남을 화나게 하고 이기적 이고 악의적이고 인색하고 거짓을 일삼고 부끄러움과 장피함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을 천한 사람으로 아십시오. 날 때부터 천한 사람인 것이 아니라 어떤 짓을 하며 사느냐에 따라 천한 사람도 되고 귀한 사람도 되는 법입니다." ('숫타니파타' 전제성 역주, 한국불교역사 연구회, 124-133쪽) 하나하나 짚어가다 보니 제 자신이 바로 천한 인간의 조건에서 자유롭지 못해 부끄 럽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조건 가 운데 몇 가지에 걸리는가요?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추석연휴 관계로 동화사 계유수행대법회가 한 주 쉬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는, 일체 언론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숨어있는 선지식'으로 불리는 연수 스님의 법문을 소개합니다. 연수 스님은 1946년 부안초로 전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농대를 다니다가 군에 입대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교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불교에 매료된 스님은 수많은 불서를 접하고 결국 1971년, 백양사 서옹 스님을 은사로 출가합니다. 송광사에서 3년 결사를 하기도 한 연수 스님은 30년 넘게 오로지 선방과 토굴에서 정진을 이어왔습니다. 치열한 정진력과 경전을 두루 꿰는 해박함으로 은사 서옹 스님의 인정을 받았고 수좌들의 존경까지 받고 있습니다. 봉화 태백산의 토굴 무학대에서 수행중이던 연수 스님은 지난 송광사 결사 때 인연을 맺은 르노 뇌우버auer (Renaud Neubaue) 교수(에쿠아도르 끼토시 산 프란시스코 대학교, 동양학) 초청으로 남미 에쿠아도르 현지인들에 게 남북방 불교와 선을 가르치기 위해 지난 7월 출국했습니다. 다음은 연수 스님이 6월 19일 황성 죽림산사(회주 선행)를 방문했을 때 불자들의 즉석 질문을 받고 한 법문을 요약 한 것입니다.

내가 현재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 일체가 다 공부꺼리... 관찰은 과정이자 완성



연수 스님 (조계종 수좌)

▲ '퐁막대기' '끼다거' 이런 화두가 나온 선사스 님들의 일화를 상기할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 습니다. 이런 말들이 선사들 사이에서는 다 통한다고 하는데 깨우쳐진 건지 같은류의 공감대가 있어서 깨친 것으로 봐 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화두를 선택할 때 첫째조건이 그 스님들이 완벽 하게 깨친 분이라고 믿는 마음입니다. 부처란 무엇 인니까 했더니 '퐁막대기다'라고 했습니다. 퐁은 개념으로만 본다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런데 운문 스님은 그렇게 말했던 말입니다. 무슨 뜻으로 퐁막 대기라 했을까, 왜 퐁막대기라 했을까 의심해 들어 가야 합니다. 화두를 든다고 했을 때 퐁막대기에 낙 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퐁막대기라 한 운문 스님의 뜻이 무엇인가로 들어가야 합니다. 모든 화두가 다 그렇습니다. 의심이 붙어야 해요. 수행을 해 경지가 깊어지고 지혜가 나와 법기량을 위해 큰스님을 찾았다고 할때 적당한 교감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화두를 타파한다는 것은, 즉 인정이 되고 교감이 된다는 것은 차원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퐁막 대기'라고 말한 운문 스님이 계시면 좋지만 운문 스 님이 안 계시니까 대타로 어떤 스님이 계시다고 할 때 그 스님이 운문 스님 정도의 경지가 돼 있느냐 나 니냐가 또 문제가 되겠지요.

생활속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화두'로 ▲ 천여년전에 만들어진 화두가 현대인들에게도 의심이 날 수가 있습니까? 현대인들에게 맞는 화두 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 '동산수상행(東山水上行)' 이라는 화두가 있습 니다. 동쪽 산이 물위를 지나간다? 도저히 상식으로 는 납득이 안 돼요. 어떤 스님이 그 말을 했을 때 그 스님이 철저히 깨친 분이라고 믿을 때 그 화두가 의 미가 있어요. 그러나 동산수상행이라는 화두가 지금 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화두쪽으로 이해를 하면 됩 니다. 수행의 가닥을 화두쪽으로 잡아서 수행을 하 겠다고 하면 이해할 부분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이 말을 통해서 선사가 말하고자 한 뜻이 뭐냐? 화 두에 '왜' 자가 붙어야 해요. '무' '동산수상행', 이런 말을 왜 했는가 화두의 본뜻입니다. 그러므로 생활 의 문제, 자기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풀리지 않는 문 제를 화두로 잡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화두의 본뜻 은 부처님의 깨친 경지를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것이 기 때문입니다. 실제모도 회통할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실연을 했다고 할 때, 왜 내 가 실연했을까? 사랑하는 사람이 왜 나를 미워하고 떠났을까? 이게 그 사람에게서는 절박한 문젠입니다. 그 럼데 깊이 침잠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내 감정과, 떠난 사람과의 관계

Advertisement for '瑞榮普洱' (Suieung Pu-erh) tea. The ad features a large, stylized calligraphic character '茶' (Tea) and '瑞榮普洱' (Suieung Pu-erh). Text includes '선보이, 개명기법' (Presenting, name-changing method), '선보이, 개명기법' (Presenting, name-changing method), and '선보이, 개명기법' (Presenting, name-changing method). It also mentions '선보이, 개명기법' (Presenting, name-changing method) and '선보이, 개명기법' (Presenting, name-changing method). The address is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74-10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 FAX 02)737-0855 / H.P 017-411-0882'.

Advertisement for '아로하, 향적당' (Aroha, Hyangjeokdang) health products. The ad features the text 'Wellbeing Life' and '장해명 스님께서 15년간 환경보존연구와 미생물(효소) 연구 끝에 직접 생산하신 건강기능식품인 효소발효제품 아로하, 향적당'. It lists benefits like '신진대사 활성', '장내플로라 개선', and '체질 개선'. It also mentions '활력있는 삶 웰빙 라이프' and '엄선된 국산의 유기농산물에 미생물(유산균)을 배양 발효시켜 효소, 아미노산, 미네랄, 비타민 등이 풍부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The products shown are '아로하' and '향적당'. The address is '전국 소자본 대리점 모집 (부처님 제자이시면 더욱 좋습니다)'. The address is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74-10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 FAX 02)737-0855 / H.P 017-411-0882'.

번뇌 자리 바로보면 그 자리가 바로 지혜

의 있는 그대로 모습 등을 면밀하게 살펴 볼 것 같은 인과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인과 문제를 철저히 비추면 무상 무아의 삼법인에 돌입이 됩니다.

▲ 성철 스님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는 유명한 말인데 그 참뜻을 알고 싶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누구나 아는 이야기죠. 너무나 뻔한 상식을 가지고 진리라 판단 말이에요. 깨친 경지에서 나온 말이죠. 그런데 도인들이 하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경지와 범부들이 하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배고프면 밥먹고 졸리면 자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지만 다 하는 일을 우리는 제대로 못한다 말입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는 것은 다 아는 얘기 같지만 실상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석가모니부처님을 '정자각자(正覺者)'라 부릅니다. '바르게 스스로 깨친 자'라는 뜻이지요. 부처님께서 자기를 있는 그대로 살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치기 전에 공부했던 것들은 인위적으로 가장해서 개념적으로 설정해서 그 이치를 깨쳐가는 것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들이 이념적으로 인위적으로 사상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간파했어요. 공극적이 아니라는 것을 아신 거지요. 스스로 바르게 깨쳤는데 무엇을 깨쳤는가 하면, 과장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깨친 것입니다.

결국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는 있는 모습을 그대로 제대로 보라는 뜻입니다. 진실로 뜻을 알리면 실제 수행하는 수밖에 없어요.

전생 알려면 현재를 보라

▲ 죽은 후 내세가 어떻게 될까 관심이 많습니다. 불교에서의 내세관은 어떤 것입니까?

-불교에서는 인과이야기를 합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자업자득이다.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 는 것이 기본사상입니다. 내가 한 것을 남이 대신 받을 수 없고 남이 한 것을 내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지요. 인과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보통 인과를 말하지만 상식으로 아는 것이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인과를 제대로 알면 삶이 확실히 바뀌게 됩니다.

사후문제를 믿고 확고하게 결론내 보여주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어려운 이야기예요. 부처님께서는 부처님 말씀조차도 지혜로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남의 지혜가 아니라 자기의 지혜로 잘 살피서 이해가 되면 믿으라고 했어요. 사후문제도 그렇게 봐야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현실을 중요시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현실에 있는 것이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현재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니까.

전생을 알려면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알니다. 내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걱정하지 말고 현재 최선을 다해 '잘' 살아가도록 노력하세요.

▲ 자성을 깨우치는 방법으로 팔정도수행을 강조하는데 어떻게 수행해야 하나요?

-내가 내 마음을 여덟가지로 살펴서 바르게 정진

하면 깨칠 수 있습니다. 율불통계계의 '제약막작 중선불행 자정기의 시제불교(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敎, 온갖 악을 저지르지 말고 모든 선을 행하라. 그런 가운데 자기 마음을 잘 말라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와 팔정도는 같은 가르침입니다.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라', 이것은 윤리적 차원에서 양심있고 도덕적인 사람은 다 할 수 있어요. 불교에서 더 요구하는 것은 '자정기의(自淨其意) - 그 마음을 말라라, 수행하라' 이지요.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말을 바르게 하는 가운데 철저히 깊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말라라.

말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는가 하면 철저히 해서 '산은 산 물은 물'처럼 '있는 그대로' 봐야 합니다. 마음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하는데 쉽지 않거든요. 그 쉽지 않은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이 수행입니다.

팔정도의 첫번째가 정견(正見) 바른 견해입니다. 정견이 제일 먼저 있는 이유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부처님의 핵심사상이라든가 수행자세라든가 모든 것이 정견을 통해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일곱가지 행(行)은 자연스럽게 더불어 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 제자들이들은 수행에 장애(妨礙)가 많습니까. 부모 자식 남편 등 가진 속에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일어나지 않는 줄을 안다, 순서가 번뇌가 생겼고 다가가고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번뇌가 일어나서 선정경지에 들었다, 번뇌가 있는 것이 점점 없어져서 없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잘못 본 것입니다. 왜 잘 못 본 것이냐 하면 번뇌가 없어서 고요하면 고요한 상태에서 고요한 줄 안다는 것이 들어가 있고 번뇌가 일어날 때도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안다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위빠사나의 관(觀)이거든요.

알음알이 돌리면 그대로 지혜

번뇌가 있고 없고는 상황적이라. 끝까지 남는 것은, 있고 없는 상황을 여실히 관찰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깨쳤다고 하면 거기서 깨치는 것이 번뇌가 없어서 고요한 것을 깨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고요하고 싶고 편가 경지를 얻고 싶고 그것을 회구하거든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정 과정에서 살피가는 수행자의 마음마음에 풀나찰나 알아차리는 데, 어떻게 알아차리느냐 하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는 것, 알아차리되 알아차리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미세하게 관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건듯건듯 합니다. 수행자가 마음을

요, 식(識)을 돌려서 즉, 알음알이를 돌려서 바로 지혜를 성취한다는 말입니다. 대승에서 말하는 '번뇌 즉 보리' 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번뇌를 벗어나서 지혜를 얻는 게 아니라 번뇌 그 자리를 바로 보면 그 자리가 바로 지혜입니다.

용맹심을 가지고 탐심을 관찰하면 그 탐심 무더기가 그냥 미세하게 쪼개집니다. 물리학세계에서 전자현미경으로 본자를 쪼개 완전히 미세하게 살펴 보니까 허공이 되어버려요. 허공이 티끌속에 들어갔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큰 것은 크고 작은 것은 작은 줄 알았는데 물리세계에서 작은 것을 확 쪼개보니까 무한한 허공이 있어요.

그것이 마음수행으로도 연결됩니다. 내가 관찰하는 힘이 미약한 것이 문제지만 알아차리는 힘 그거지, 즉 반야에요. 우리에게서 원래 반야지혜가 있어요. 살필 수 있는 마음, 그냥 해가는 마음뿐 아니라 해가는 상황을 다시 비추어볼 수 있는 마음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을 무변광대(無邊廣大) 했는데 마음 가운데는 무변한 영능(靈能)이 있어요. 한 생각 일



수좌계에서 '숨어있는 선지식'으로 통하는 연수 스님.



죽림산사에서 연수 스님은 즉석 질문을 받고, 일상에서의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하는 수행을 하라고 강조했다.

으키는 순간에 팔식도 칠식도 육식도 다 있습니다. 탐심을 내어 탐심이 일어나 탐심을 살폈다 할 때, 그 탐심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수행관에 의해서, 부처가 되고자 하는 깨치고자 하는 원력이 있고 선군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살피가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일어날 때, 아 잘못되었다 반성할 수도 있고 그 마음자체를 수행그릇 삼아서 다음 환나에 그것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인과 철저히 비추면 삼법인 돌림

▲ 세계적인 심리학자 칼 융 박사가 바르도 상태(티베트어로 '중간상태'란 뜻. 죽음과 환생사이에 생겨나는 중음의 상태에서 최입이 많으면 업식 때문에 밝은 빛을 못 따라가기에 평소와 밝고 맑게 살아야 바르도 상태에서도 좋은 빛을 따라갈 힘이 생긴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전강 스님 법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명한 율사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정면에 입회한 사람이 여럿이었는데 누더기 입은 수좌가 있었대요. 율사스님이 숨이 막 넘어가려는데 수좌가 벽

력같이 소리를 쳐요. "스님, 정신 차리십시오!" 자기로 보서는 좋은 경계로 가는 판인데 그만 깨어나게 되어 그 수좌한테 호통을 쳐요. "내 좋게 가는 길을 왜 방해하는가?" "스님, 어느 경계를 보셨습니까?" "불보살이 나와 영접하려는데 내가 방해할 해서 못 갔다." 이 수좌가 "지금 스님은 돌아가시면서 저 아래 있는 까치집에 태어납니다." 말을 맞춰보니 다 맞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헛공부를 했다고 율사스님이 참회를 했다고 합니다. 경계에 속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되지, 적당히 해서 되는게 아니라는 뜻으로 하신 법문입니다. 평소 잘 해야 된다 라는 말은 맞아요. 평소 열마름 하느냐에 따라 경계가 나옵니다.

정말로 극미세 관찰해서 부처님 깨달은 경지인 무상의 도리를 깨쳐서 그야말로 완벽히 해야 마지는 것이지 그전에는 합정이 많습니까. 좋다는 경계도 실은 업(業)으로 오는 겁니다. 선어록에 '부처가 감응하더라도 따라가지 말아라, 무상(無常)으로 보라' '어떤 경계가 나오더라도 삼법인(三法印)으로 해석하라' 가 나오는데 이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리 · 사진/죽림산사=이경숙 기자

“일상생활속 화두드는 연습하세요” 깨침의 핵심, 있는 그대로 미세하게 살피는 것

생활속에서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요?

-요즘 재가불자들이 화두선을 많이 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하는게 보통이지요. 시간을 정해 절에 가서 할 때도 있고 자기집에서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끊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화두를 드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근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어려워요.

나도 선방을 10여년 다니고 토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방생활이라는 것이 주로 앉아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시간을 정해 수행하거나 해체해서 밖으로 나오면 딱 잊어버리게 됩니다. 주로 앉아서 수행하다 보니가 좌선으로만 수행하려는 심리가 은연중 있어요. 내게도 빠져들게 있었어요. 그만큼 집착한다 이겁니다. 좌법에 집착해 버리면 좌법에서는 공부 가 되는데 좌법을 풀고 다른 행위에서는 공부 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예 처음부터, 어렵긴 하지만 행주좌와(行住坐臥) 관계없이 딱 들어가는 방법을 할 수만 있다면 그게 오히려 좋습니까.

<대념처경>을 보면 행주좌와가 다 공부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일체사 일체처 일체심, 일체 어느 곳에 어느 때 있든지 모두 수행거리라 했습니다.

내게 번뇌가 일어나면 일어난 줄 안다. 또 번뇌가 계속되면 계속된 줄 안다. 번뇌가 멈췄으면 멈췄음을 안다. 번뇌가 멈춰서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다시

더욱더 미세하게 관찰하는 그것이 정진입니다. 정밀할 정(精)에 나아갈 진(進)자. 정진이라는 것이 오래 앉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순간을 앉더라도 자기의 마음을 정밀하게 미세하게 살피려고 하는 각오, 원력, 의지를 말합니다. 이것이 정사유(正思惟)입니다.

그런 사유를 통해서 마음을 정하고 나아가려 하고 결행하려는 의지로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고요한 데서 화두를 들것이나 잘 안 되더라도 일상생활속에서 화두를 잡도록 하세요.

<반야심경>에 '불생불멸(不生不滅)'이란 말이 나옵니다. 불생이라는 것은, 미세미세하게 들어가서 내마음이 탐진치가 생하는 모습을 정확히 100% 미세하게 살피서 잘나생하는 모습을 완벽하게 깨쳤을 때 그것을 불생이라고 하고 무생이라고 합니다. 불생이라고 해서 태어남이 없다가 아니라 태어남을 너무나 정확하게 봐버리니까 그 자리는 생(生)이라고 할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살아서 생각들이 움직이지만, 최극미세하게 살피서 부처님같은 경지가 되어 그 자리에서 살피보니까 그 자리에서는, 마음이 생하는 모습이 생한다 하지 못할 정도로 복잡하게 연기되어 있더라 이거지요. 연기도리를 깨친 것이지요. 연기도리를 깨치니까 그 자리가 무생(無生)이고 무언인 것을 알겠고 무상(無常)을 제대로 알겠어요.

유식불교에서 '전식성지(轉識成智)'라는 말을 써

전국지역 직판장 및 딜러 모집

조상님들에 대한 孝를 다할 수 있는 기회!!

부패, 악취, 벌레가 생기지 않는 신개념 진공후 질소충천 그린함!!



실용신안등록 제00359899호



의정등록 제0371274호

고신의 영원한 산식처 그린함의 특징

- 황점토에서 추출한 최첨단 신소재를 이용하여 용기가 변형되지 않고 연구회 보관
- 신소재를 이용한 마개부의 완벽한 진공과 질소 충전 실현
- 완벽한 밀폐로 산화 및 결로현상이 발생하지 않아 유골이 썩지않고 변질되지 않음
- 자연친화적이며 가정의 한 곳에 모셔도 냄새나 불쾌감이 전혀 없음
- 열과 습기에 특히 강함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총림 송광사 말사 백화사
소속법인 (주)뉴그린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도전리 1165-2 / 문의전화 031)886-0436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640-4 / 문의전화 031)416-2088